주간 이슈 리포트

65 호

2004년 12월 넷째주(12/20 ~ 25)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조장할 셈인가
- 노동자 세상: 널 뛰는 경제보도, 추락하는 한국경제
- 통신정책: 휴대인터넷 컨버전스 폰 이르면 내년말께 상용화
- 정자동 6층에서 성폭력 사건과 상품판매요원의 인권침해를 보는 시각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세상돋보기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조장할 셈인가

19일 UN총회가 의결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열린 이주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한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들이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이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 실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송출업체를 간판으로 내걸고 비싼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재입국할 수 없는 산업연수생을 재입국시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었다. 이에 앞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열 중 넷꼴로 성폭력과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주 노동자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되레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할 만큼 산업연수생 제도는 지난 10여년 동안 쟁점이 돼 왔다. 인권유린과 착취로 나타나고 있다 '연수'라는 명분 아래 이주 노동자들을 헐값에 착취하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주 노동자 전반에 대한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때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2000여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와 이방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따뜻한 대한민국이기를 바라면서 오마이 뉴스의 송은희 기자의 글을 옮겨적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지난 8월에 시행된 이후로 네 달이 지났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취지였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시행 전부터 이주 노동자들의 반발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출국을 피해 잠적하거나 명동 성당에 천막을 치고 얼마 전까지 근 1년간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최근엔 강제 출국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청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주요 원인이던 산업연수생을 현재보다 2배 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로 풀릴 것 같던 문제가 다시 실타래처럼 얽혀드는 양상이다.

MBC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방영한 '아시아, 아시아' 코너를 본 적 있는가? 우리는 그 프로를 보고 이주노동자들이 돈만 주면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누군가의 아들, 딸, 동생인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지못해 고향을 떠나와 돈을 벌어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유럽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글과 사진집인 <제7의 인간>도 인간이라는 틀로 바라 본 이주노동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글을 쓴 이는 영국의 비평가이자 다큐작가인 존 버거이고 사진은 존 버거와 함께 <말하기의 다른 방법> <행운아>를 작업한 장 모르가 찍었다.
존 버거의 글은 성실한 관찰자로서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하다가 때로는 이주노동자가 쓴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해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또 장 모르의 사진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슬프고도 미묘한 감정의 떨림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주노동의 세계적 필요성이란 무엇인가
터키와 북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 경제의 성장기에 이주노동을 떠났다. 지금이야 이들이 각 나라에 정착해 그들의 자식을 기르며 시민으로 살지만 이주노동 초기에는 현재 우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처럼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모양이다.
물론 우리 나라처럼 구타를 당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야만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초기 이주비용을 위해 엄청난 빚을 지고 1년 내외의 계약기간 내에 빚을 갚고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힘든 일을 하는 모습은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 같다.
존 버거는 이주노동은 이주노동자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필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세계 경제체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모국을 저개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이주노동의 1차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서유럽의 노동인구가 줄어서 터키나 북아프리카의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서유럽은 자본과 기술을 갖추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이에 따라 경제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직접 생산에 투입할 자국의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저개발국의 남아도는(사실은 산업의 미발달로 노동인구를 수용할 산업이 없는 상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존 버거는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서유럽의 노동자들에게 '계급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차이들(이주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열악한 생활 환경)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안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주노동은 이주노동을 받는 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의 어려움

<제7의 인간>은 이주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통계조사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정신병 발병률이 프랑스 시민보다 2-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존 버거는 이것을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불안과 불행으로 2-3배나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과학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주노동을 하러 타국으로 가는 것은 '인간들이 아니라' 기계 관리인, 청소부, 땅 파는 인부, 공원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인간(남편, 아버지, 시민)으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아무 장래가 없어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인 것이다.

존 버거는 이주노동이 마치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죄수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찾을 수 없듯 이주노동자는 타국에서 노동하는 동안 모국에서 보내야 할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감옥(이주한 나라)에서 감옥 밖의 세상(그들의 고향)을 꿈꾸며 노동에 대한 별다른 보람도 없이 감옥을 벗어나기 위한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40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나라는 지금 40만, 인구의 1%가 이주노동자인 나라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정착 역사도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처음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온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수긍할 만한 합리적 절차를 만들어 서로 이득이 되는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제7의 인간>을 보며 서유럽으로 간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다가도 우리 나라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존 버거가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그나마 행복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고독은 깊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이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최소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겠다고 투쟁하지는 않았을테니 말이다.

오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날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한다고 한다. 그들이 웃으며 기념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제7의 인간>에 나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지금은 좀더 나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널뛰는 경제보도, 추락하는 한국경제

지난 9일 조선일보가 경제섹션의 머리기사로 일본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파격적인 지면을 할애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일본 10년 불황터널 끝에서 다시 뒷걸음질, 한·일 닮은꼴 추락 조짐'이란 제목을 달았다. 이 기사로만 보면 일본 경제가 일본 경제가 여전히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는 "일본이 '미완의 구조조정'이라는 덫에 걸려 소비도 투자도 본격적인 회복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논거로 일본 경제의 전(前)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에 -0.6%에 이어, 3분기에도 -0.2%로 후퇴한 점을 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대, 내년에는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 역시 일본의 경제 사정만을 언급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닮은 꼴 추락에 더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 역시 내수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수출 성장세마저 둔화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4%로 추락했고, 민간소비는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일본과 한국 경제의 닮은 꼴 추락을 넘어 기사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일본보다 우리 경제가 더 심각하다고 결론 내린다. 즉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 경제성장 자체가 한국처럼 절실하지 않은 반면 우리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우리만 전 세계의 낙오자가 돼 쪽박을 찰 신세로 전락했다는 식이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외국의 경제 지표들을 인용하면서 많은 기사들을 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들은 외국의 경제지표는 부수적인 것이고 한국경제의 위기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점철됐다.

예로 일본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 관련 지표들을 인용하면서 "일본은 불황에서 탈출했는데 우리만 엉망"이라는 식으로 보도한다. 일본의 경제지표가 엉망이면 "한국과

일본이 닮은꼴로 추락하고 있다"는 식이다. 조선일보의 일본 경제 예측은 지난 1년 내내 널뛰기했다. 지난해 8월 '진단과 기획'이라는 기획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지난 6분기 내리 플러스 성장"을 보여 10년 불황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고 했다. 올 2월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의 목소리를 빌려 일본의 불황 탈출을 기정사실화 했다. 3월에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거들었다. 경제학자이자 언론인인 중앙일보 정운영 논설위원은 지난 9월8일 '중앙 시평'을 통해 "일본 경제는 최근 소비가 늘고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그리고 정말 부러운 소식이 있다. 해외로 떠난 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온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는 인터넷판에서 "일본의 경제 불황탈출 원동력은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동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대신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경련의 입장을 빌어 더블 딥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조선일보 9월23일 33면) 각 분기별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불황과 호황이라는 서로 다른 경기 예측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가 늘고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거나 해외로 떠난 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몇 달 안에 뒤집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언론은 일관된 기조를 갖고 보도해야 마땅하다. 특히 일본의 불황 탈출에 비정규직 확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 사실은 일본 경제계의 보고서도 아니고 한국 경총의 보고서다. 이런 걸 주장하려면 적어도 주장하는 자의 객관성을 살펴야 한다.

한국의 경총은 사용자단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뭐든지 끌어들이려고 한다. 한국의 경총이 일본 불황 탈출 원동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 97년 일본의 비정규직이 1,500만명에서 2002년에 1,874만명으로 늘어난 수치다. 일본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비정규직이 일본의 불황 탈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불황탈출 원동력은 비정규직 확대"라는 선정적이고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그렇게 제 입맛대로 경제 보도를 남발하는 한국의 그 어떤 신문사도 지난 97년 연말 외환위기를 예측하지는 못했다.

이정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휴대인터넷 컨버전스 폰 이르면 내년말께 상용화

통신업계와 제조업체들이 세계 첫 휴대인터넷(WiBro·와이브로) 핵심 시스템 개발과 시연 성공을 계기로 컨버전스(통합·결합) 단말기 개발에 본격 나섰다. 컨버전스 단말기는 휴대인터넷과 무선랜·이동전화·방송(DMB) 등 다양한 통신·방송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시장확대의 견인차인 것은 물론 시장의 성패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국내외 단말기업체들과의 공동 기획·개발로 신개념 컨버전스폰으로 시장을 주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KT등 통신업계와 제조업체들간의 휴대인터넷 시장을 향한 준비상황을 전자신문을 통해 짚어본다.

15일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준비사업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말께 휴대인터넷과 무선랜 또는 이동전화가 결합된 듀얼밴드듀얼모드(DBDM) 단말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국내외 단말기 개발업체와 기능 및 규격 선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3개 준비사업자들은 휴대인터넷과 무선랜·이동전화 결합을 주력으로 보고 있지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과 결합한 고성능 제품이나 증권·금융용 PDA 단말기 등 단순 기능 제품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차별화한 기능·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삼성전자·LG전자·포스데이타 등 휴대인터넷 장비개발을 추진중인 국내 업체들은 시장선점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말기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단말기 분야는 무선 정보단말기 시장에 진입한 인텔·블랙베리·HP 등 해외 사업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서비스 준비사업자들과의 물밑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텔은 무선랜과 휴대인터넷을 결합한 DBDM 모뎀칩 개발을 위해 국내 업체들과 세부 기술규격을 논의중이며 KT와 '네스팟스윙' 단말기를 출시한 HP는 50Mbps급으로 무선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휴대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신모델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월벨, 어댑틱스, 런콤, 텔레시스 등 장비개발업체들도 종합솔루션 공급을 위해

단말기 개발 제휴를 추진중이다.

KT의 한 관계자는“시스템 개발과 달리 단말기는 시장 수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시장 성패의 관건”이라면서 “다양한 국내외 단말기업체들과의 공동 기획·개발로 신개념 컨버전스폰으로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증권·금융용 데이터를 저가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기업용 시장도 수요가 높다고 본다”라면서 “해외 전문업체들과의 접촉도 시도중”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과 상품판매요원의 인권침해를 바라보는 시각

밀양성폭력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석하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질신문과 욕설을 퍼붓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했다. 결국 관련 경찰이 징계됐지만 우리사회가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하는 단적인 예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각은 보통 이렇다.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먼저 꼬리치지 않았는데 누가 그랬겠느냐'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고 만다.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리사회는 오히려 매질을 가하는 사디스트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KT와 관련한 인권침해보도가 있었다.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상품판매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114와 인사고과에서 D등급받은 사람들이다. 회사의 책임 유무를 떠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따돌림이다. 이들에 대한 왕따 이유는 관리자의 지시, 업무부적응으로 인해 부서에 피해를 준다는 등이다.

이들의 기자회견을 두고도 말이 많다.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민동회라 그렇다' 등. 같은 노동자로서 동료의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마치 밀양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의식과 흡사하다.

밀양의 성폭력 피해자와 상품판매요원의 인권침해를 함께 결부시킨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밀양 성폭력과 KT의 상품판매요원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디즘은 비슷한 수준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재계와 언론은 이와 비슷한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언제나 부정적이며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춰왔고 언론은 재계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KT의 노동자들도 '국가전복세력'으로 몰리며 많은 피해를 봤다. 그 피해자인 우리가 우리 안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질을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왔던 자본가들과 다를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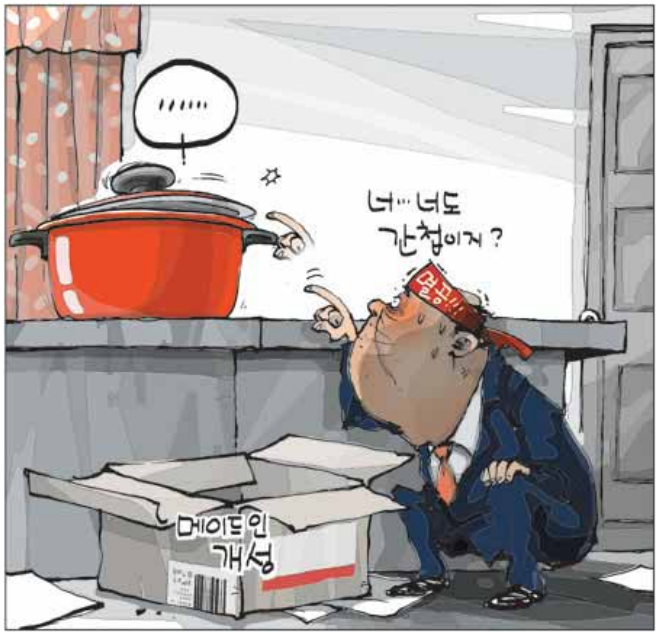
현재 회사가 이들에 대한 희망업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상품판매요원은 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지사와 망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사와 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조합간부를 비롯한 조합원이 따뜻히 감싸주지 않는다면 상품판매요원의 정신적 유랑상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먼저 현장의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자. 어쩌면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피해자들은 쉽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작은 생체기에도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조금은 덜 아픈 우리가 상품판매 요원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차완규<중앙본부 정책1국장>

만 화 방


.....
너…너도 간첩이지?
메이드인 개성

한편에선 달추하나 안치웠다고 군기교육대 들어가는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대한민국군대 군기…
이름! 군번!!
장성진급 비리
굴검찰

재벌개혁
황석현 주미대사
언론개혁
자주외교
코드인사
추가파병
집권2년 공든탑
굳이 작품비결을 말씀드리자면 '무원칙'이고요…

어?
고문당했다
간첩!!
여론
국민여러분! 간첩입니다! 간첩!!
정형근
꾸욱